

2024-16호

DaWinKS Weekly Report

DIGITAL(CRYPTO) ATM · PAYMENT

DPEC PLATFORM



Contents

1. Company Activity

- 다원KS - SBA 지원 메타버스 홍보 영상
- Digital ATM 운영 현황
 - : 외화 환전, 외화 입금(원화 충전), 디지털머니 출금, 해외송금, 택스리펀드(시내환급)
 - 이마트24 삼청동점 / 명동중앙점 / 스타필드코엑스몰2호점
- 파트너사 소식
 - [임명수 발행인의 핀테크 창업] 핀테크 비즈니스 창업의 몇 가지 원칙
 - 메타젤리스, 웹3 기반 글로벌 기부 플랫폼 운영사 벤처스 네트워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발표
- 다원KS - 혁신외환금융서비스
- Digital ATM/DTM & Crypto ATM/CTM 소개

2. Blockchain News

- 차기 국회로 넘어간 STO 법..."업계 다양한 의견 더 들어야"
- 토큰증권, 개화 앞두고 멈춘 법제화...총선 끝나면 속도 낼까
- '생각하는' AI 곧 출시... "오픈AI·메타 새 모델 출시 예정"
- "VC도 가상자산 투자" 일본 웹3로 기술·인재·자본 몰린다
- 역대급 코인 불장에도 은행권은 '거리두기'
- 코인베이스,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 '무죄'
- 제22대 총선, 175석으로 민주당 압승... 공약으로 내건 코인 정책은?
- "업비트, 3월 현물 거래 '297조' 전세계 2위"
- 유망 RWA 코인, 프리세일 1,300만 달러 모금 - 도대체 RWA가 뭐길래?
- 코인시장 새 키워드 'RWA' 급부상...美 블랙록이 찍은 이유는
- "홍콩 비트코인 ETF, 중국 본토 투자자 구매 불가"- 우 블록체인

Contents

3. Blockchain Financial

- 업비트 독주 제동 나선 크립토닷컴...관건은 탈 김치 프리미엄 가격 제공 여부
-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된다 vs 안된다...엇갈린 전망 [암호화폐 A to Z]
- 리플 CEO "올해 가상화폐 시장 배로 성장" ...규모 7천조원 전망
- [블록체인핫이슈] '실적 부진' 가상자산 거래소...토큰증권법 개정 언제쯤?
- '비트코인으로 여행 떠나볼까' 브라질 관공 도시 '비트코인 결제' 채택
- 1INCH, 암호화폐 직불카드 출시... 마스터카드와 협업
- "해킹 코인, 거래소에 내다팔면 부정 거래"...당국 수사 대상 된다
- FIU, 가상자산 인력 증원 요청...기대 품는 업계
- 스테이블코인 FDUSD, 이더리움·BNB 체인 이어 '수이 블록체인' 통합
- '가상자산 회계지침' 첫 적용되는 1분기 보고서...핵심이 빠졌다
- 클레이튼, 핀시아와 통합한다... 신규 브랜드 이달 말 공식 발표
- 밌코인 시가총액 급증, 2021년 이후 최대치

4. DaWinKS



1. Company Activity

다윈KS - SBA 지원 메타버스 홍보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rL9JKKL0sGo>

1. Company Activity

다윈KS - SBA 지원 메타버스 홍보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q25_pbO1BU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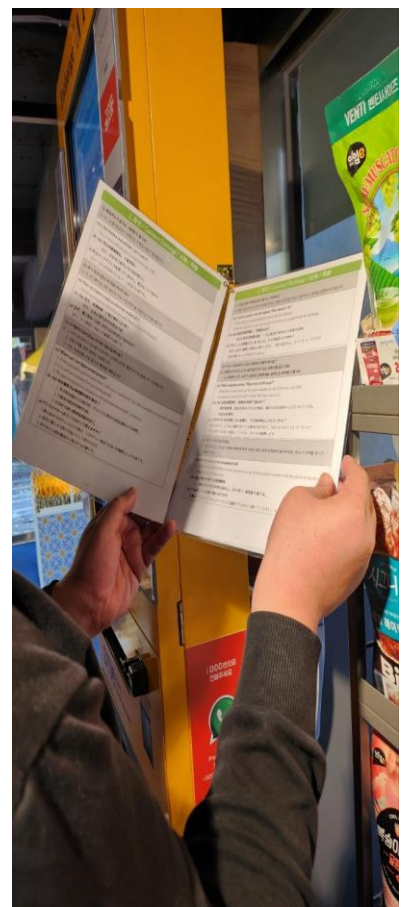
1. Company Activity

Digital ATM 운영 현황

외화 환전, 외화 입금(원화충전), 디지털머니출금, 해외송금, 텍스리펀드(시내환급)

1호 : 이마트24 삼청동점 – 2023.11.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68, 팝업스토어 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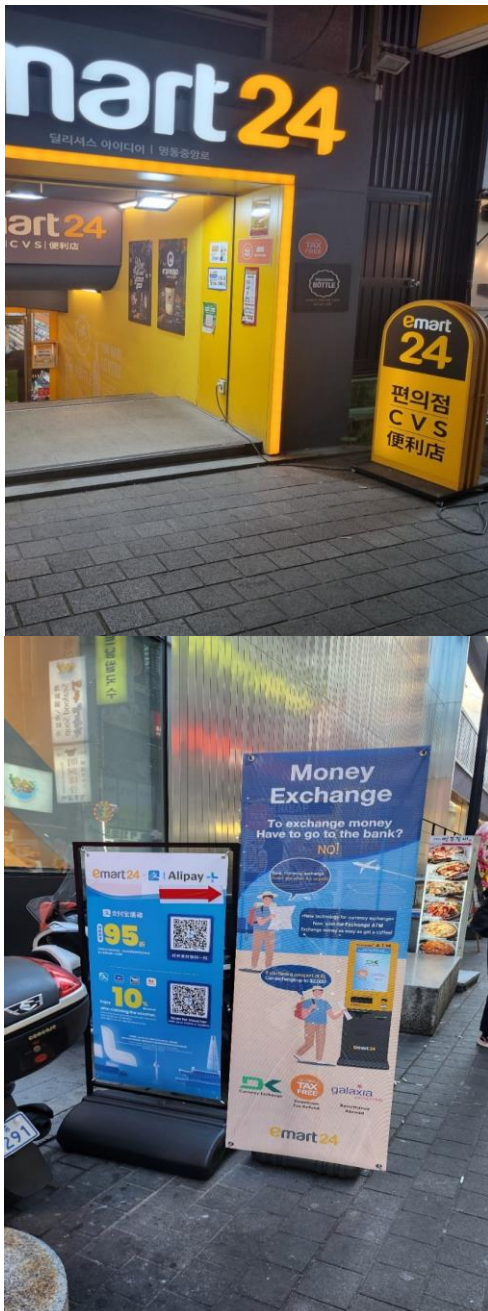
1. Company Activity

Digital ATM 운영 현황

외화 환전, 외화 입금(원화충전), 디지털머니출금, 해외송금, 텍스리펀드(시내환급)

2호 : 이마트24 명동중앙로점 - 2023.12.01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8길 21-7, 지층



1. Company Activity

Digital ATM 운영 현황

외화 환전, 외화 입금(원화충전), 디지털머니출금, 해외송금, 텍스리펀드(시내환급)

3호 : 이마트24 스타필드코엑스몰2호점 - 2024.01.23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트레이드타워



1. Company Activity

[임명수 발행인의 핀테크 창업] 핀테크 비즈니스 창업을 몇 가지 원칙



핀테크투데이 발행인 임 명 수

핀테크 비즈니스 창업을 몇 가지 원칙

핀테크 산업에서 창업은 단순히 기술적 혁신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금융과 기술의 교차점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과정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기존 금융 서비스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시도로 가득 차 있다. 창업자가 금융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든, 전혀 새로운 분야로 도전하든 간에, 핀테크 창업은 몇 가지 원칙에 의해 그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

금융 지식의 역할

핀테크 창업의 첫 단계에서 금융 지식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시장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고, 그 흐름을 이해하며 기존 금융 상품의 제약을 불편해하고 이를 혁신하는데 필수적이다. 하지만, 동시에 금융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혁신을 제한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기존 금융 체계에 대한 깊은 이해가 고정관념으로 작용해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금융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창업자들은 기존 체계의 제약에서 자유롭고, 그 자유로움 덕에

1. Company Activity

[임명수 발행인의 핀테크 창업] 핀테크 비즈니스 창업의 몇 가지 원칙

아니다 싶을 정도의 독특하고 전혀 새로운 아이디어로 이어질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게 된다.

혁신적 아이디어의 중요성

핀테크 산업에서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핵심적이다. 이 아이디어는 기존 금융 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고,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해야 한다. 혁신은 기술적 발전뿐만 아니라, 사용자 경험, 서비스 접근성, 비용 효율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창업자는 시장의 필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독창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소비자 중심의 접근 방식

핀테크 창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금융 소비자의 필요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창업자는 금융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요구를 깊이 이해해야 한다. 소비자 조사, 피드백 수집, 사용자 경험 개선은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소비자의 필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충족시키는 서비스나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핀테크 창업의 성공으로 이어진다.

남대문 문턱 비유: 무모함과 대담함

핀테크 창업에서 남대문 문턱의 속담은 창업자의 태도를 상징한다. 문턱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긴다는 속담에서 보듯이 그것을 뛰어넘으려는 무모함과 대담함이 필요하다. 이러한 태도는 기존의 금융 체계와 시장의 틀에 도전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견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 마디로 무식함이 용감하다라는 말처럼 때로는 좌고우면하지 않는 직접적인 경험에 착안하는 창업자는 기존의 제약을 넘어서는 용기와 창의력으로 시장에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영광을 차지할 것이다.

1. Company Activity

[임명수 발행인의 핀테크 창업] 핀테크 비즈니스 창업의 몇 가지 원칙

결론: 핀테크 창업의 본질

결국 핀테크 창업의 본질은 금융 지식의 유무를 넘어선다. 핵심은 소비자의 필요를 깊이 이해하고, 이를 충족시키는 혁신적인 서비스나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래서 금융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창업자라 할지라도, 소비자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정성과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다면 성공적인 핀테크 비즈니스를 구축할 수 있다. 결국, 핀테크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필요와 문제를 해결하려는 끊임없는 노력과 창의적인 사고방식이며, 이러한 접근 방식이 금융의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원동력이 된다 라는 판단이다.

1. Company Activity

메타젤리스, 웹3 기반 글로벌 기부 플랫폼 운영사 벤처스 네트워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발표



메타젤리스(MetaZellys)는 웹3 기반의 글로벌 기부 플랫폼을 운영하는 벤처스 네트워크(Ventures Network)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표했다. 양사가 협력하여 사용자의 참여와 활동을 통해 받은 리워드 토큰을 기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들에게 메타젤리스를 알릴 예정이다.

벤처스 네트워크는 사용자들이 참여하고 활동하면서 얻는 리워드 토큰을 스타벅스 커피 상품권으로 기부하거나 교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광고, 기부 등 다양한 활동과 연계된 타 플랫폼과의 전략적 협력 및 연동을 통해 보다 탄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투명한 기부 시스템과 광고에 대한 노하우를 결합한 플랫폼으로, 베타 테스트 기간 동안 약 200여 개국에서 50만명이 참여하였다.

4월 둘째주부터 메타젤리스의 콘텐츠를 활용하여 벤처스 네트워크와 공동으로 글로벌 공동 마케팅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젤리스 캐릭터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멤버십 커뮤니티로서의 가치, 안정적인 수익 시그널을 제공하는 트레이딩 서비스 등이 전세계 유저들과 인플루언서들의 자발적으로 콘텐츠를 만들어 홍보할 수 있는 이벤트를 만들어, 양사에 많은 유저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1. Company Activity

메타젤리스, 웹3 기반 글로벌 기부 플랫폼 운영사 벤처스 네트워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발표

메타젤리스 프로젝트 운영사 젤리스페이스의 조현진 대표는 "다양한 리워드 및 기부 문화 확산을 통해 벤처스 네트워크의 앱이 빠른 성장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작년부터 벤처스 네트워크와의 상호 협력을 논의해 왔다. 양사는 단기적인 협업이 아닌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글로벌 생태계서 위치를 공고히 하고자한다. 상호 콘텐츠 및 플랫폼 분야에서의 성장을 돕기로 하였다."라고 말했다.

벤처스 네트워크 에릭 서(Eric Seo) 대표는 "메타젤리스는 오픈IP전략으로 국내외에서 주목을 받으며, NFT시장을 새롭게 해석하고 개척하는 진정한 웹3 커뮤니티이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벤처스네트워크의 선한 영향력을 젤리스페이스와 함께 전세계에 널리 알리고 유저들이 진정한 가치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젤리스페이스의 서비스 및 디지털경험을 전세계 벤처스네트워크 유저들에게 소개하여 함께 생태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1. Company Activity

다윈KS - 혁신외환금융서비스

Money Exchange

환전하러 은행까지 가야 돼?
NO!

은행, 환전소 급할때는 안 보이네!

환전의 신기술
이제, **무인환전기 DTM**으로 커피 뽑듯 간편하게 환전하세요!

여권, 신분증만 있으면 2천불까지 환전 가능하대구!

Crypto ATM/ CTM

코인(암호화폐)도 가능하대구?

OK, 정말!
CTM 으로 고고씹~

Money Exchange

To exchange money Have to go to the bank?
NO!

Bank, Currency exchange I can't see when it's urgent!

New technology for currency exchange
Now, with the **DTM**, Exchange money as easy as get a coffee!

If you have a passport or ID, Can exchange up to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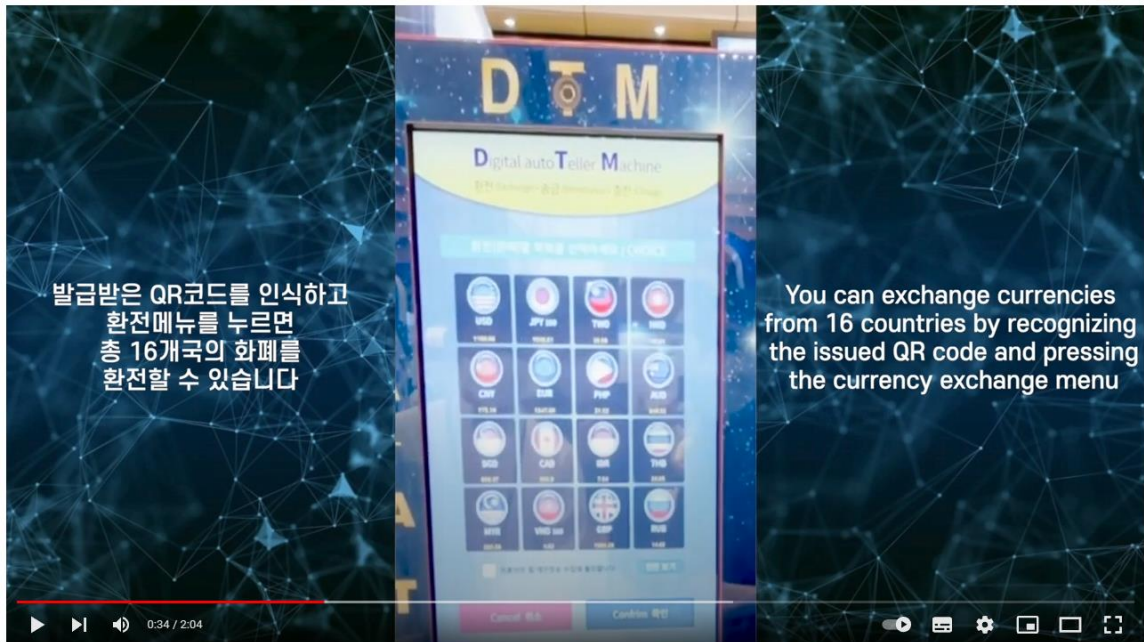
Crypto ATM/ CTM

Coin (cryptocurrency) too It's poss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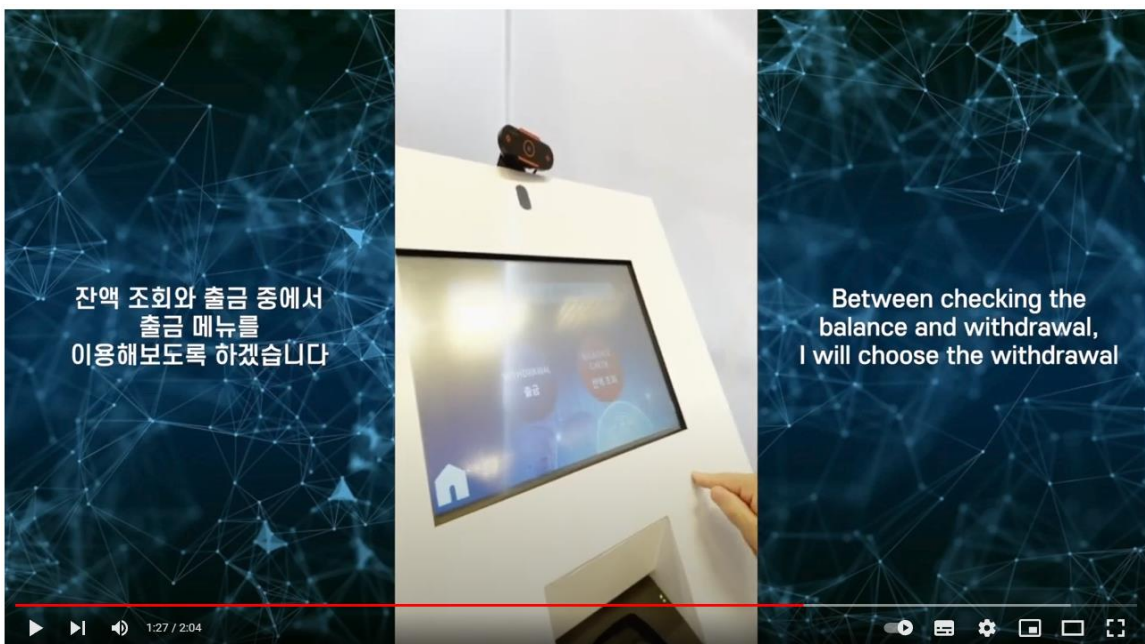
Okay, it's true!
Let's go to CTM!

1. Company Activity

Digital ATM/DTM & Crypto ATM/CTM 소개



Digital ATM / DTM & Crypto ATM / CTM - 영어, 중국어 자막



Digital ATM / DTM & Crypto ATM / CTM - 영어, 중국어 자막

2. Blockchain News

차기 국회로 넘어간 STO 법..."업계 다양한 의견 더 들어야"



▲(게티이미지뱅크)

토큰증권 발행(STO)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차기 국회에서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다만, 조각투자 업계 일각에서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STO 관련법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 예탁결제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국회 정무위원회,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가 입법안을 공개했으며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로 계류된 상태다.

해당 개정안들은 분산원장 기술을 공적 장부로 허용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장외거래 중개업자 등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자증권법 개정안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원장을 정의하고, 증권의 전자등록을 위한 공적 장부로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분산원장을 이용해 전자등록할 수 있는 증권의 종류와 전자등록에 적합한 분산원장의 구체적 요건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2348327>

2. Blockchain News

차기 국회로 넘어간 STO 법..."업계 다양한 의견 더 들어야"

또한,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권리자별 증권 보유 수량 등을 전자등록계좌부에 기재하는 계좌관리기관도 신설될 예정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의 장외거래중개업자를 신설해 현실에서 유통되고 있으나 유통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투자계약증권 등에 각 규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수록됐다. 이에 더해 장외거래 중개업 라이선스를 신설해 보유한 자가 해당증권을 유통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해당 개정안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업을 영위 중인 조각투자업자들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질뿐더러 대형 사업자로의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자증권법 개정안에는 전자등록기관이 분산원장등록주식(토큰증권)과 전자등록주(전자증권) 간 상호 전환을 위한 조건으로 발행인이 해당 주식 등에 대한 권리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전환을 신청하거나 분산원장등록주식 등이 자본시장법상에서 명시된 증권시장에 상장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했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이미 증권을 발행한 기존 조각투자업자들의 STO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전자증권과 토큰증권 간 전환이 실물권리와 전자증권 간 전환과 같이 권리나 법적 효력에 변경이 없고, 형식만 달라지는 것임에도 사유가 필요하다는 것이 불필요하고, 권리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건도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장외거래중개업만 인가받은 투자중개업자는 단위업무 추가, 겸영업무, 신용공여 등에 제한을 뒤 향후 사업 확장을 막는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 Blockchain News

차기 국회로 넘어간 STO 법..."업계 다양한 의견 더 들어야"

업무와 투자한도에 대한 규제가 장외거래중개업만 전담하는 중소형 기업들의 경쟁력을 낮추고, 업계 전반의 성장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각투자업계 관계자는 "토큰 증권이 제도권에 편입될 수 있도록 법안들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많다"면서도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전반적인 업계의 의견을 들은 것 같지는 않다. 현재 법안은 특정 업권으로의 쏠림 현상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은 한 번 제정되면 다시 바꾸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빠른 제도화 이전에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는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 Blockchain News

토큰증권, 개화 앞두고 멈춘 법제화...총선 끝나면 속도 낼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300건 돌파, 지난달 신규 5건 추가
신종증권 시장 활성화 기대감 커...5월 국회 문턱 넘을까



[이미지=freepik]

토큰증권 발행(STO) 시장 개화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커지는 가운데, 3월 혁신금융서비스 누적 지정 건수가 300건을 돌파했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혁신금융서비스는 2019년 4월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누적 303건 지정됐으며, 이 중 180건의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된 것으로 나왔다. 지난달 20일 정례회의에서 혁신금융서비스 5건을 신규 지정하면서 누적 수가 증가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9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혁신금융서비스 300건 지정 기념식'을 열어 그간의 성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때 전문가 51인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례는 △서비스의 혁신성 △금융소비자의 편익 △금융산업의 발전 △금융서비스의 개선 부문별로 선정, 발표했다.

<https://www.news2day.co.kr/article/20240408500135>

2. Blockchain News

토큰증권, 개화 앞두고 멈춘 법제화...총선 끝나면 속도 낼까

‘대출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이 종합 1위에 선정된 가운데 ‘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 거래 플랫폼(STO)’ 역시 서비스의 혁신성, 금융산업의 발전, 금융서비스의 개선까지 3개 분야에서 순위권 내에 이름을 올리며 주목을 받았다. 특히 서비스의 혁신성 분야에선 1위에 올랐다.

해당 플랫폼은 그간 개별 투자가 어려웠던 자산군에 유동성을 불어넣음으로써 지속적으로 자금을 유입시키고 개별 시장을 성장시킬 뿐 아니라, 다양한 자산군의 대중화를 통해 자본시장의 역할을 크게 확대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플랫폼 중 절반이 서비스를 출시했으며, 투자계약증권 발행사들 역시 지난해부터 줄줄이 증권신고서 제출 및 청약을 시작해 신종증권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다.

신종증권 시장 움직임이 활발해지자, 이를 중심으로 초기 시장 형성을 준비하는 STO의 본격 개화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 STO 시장은 약 360조원 규모로 성장이 예상된 바,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금융권에선 앞다퉈 시장 선점에 열을 올리는 상황이다.

증권권사들은 관련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일찌감치 사업 준비에 나섰고, 한국예탁결제원과 코스콤 등 공기관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토큰증권 시장 참여를 추진 중이다

STO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당정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2023년 2월 금융위가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데 이어, 같은 해 7월에는 국회에서 토큰증권 발행·유통을 위한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7월 발의된 법안은 현재까지 계류 중으로, 5월 임시국회까지 처리되지 않는다면

2. Blockchain News

토큰증권, 개화 앞두고 멈춘 법제화...총선 끝나면 속도 낼까

22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토큰증권 관련 입법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지만, 금융산업 성장의 새로운 길이 열릴 지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금융산업의 성장을 위해 STO 시장의 개화와 조속한 활성화는 시급한 문제지만,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내용적 충실성을 갖추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논의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구체적 기준이 없거나, 시행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통해 가능성을 열어두는 부분들이 있다"며 "법제화는 시급하지만, 추후 추가적 행정 낭비나 시장의 혼란을 예방하려면 사전에 세부 내용의 불명확성이나 구체성을 보완하는 데 좀 더 무게를 뒀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금융 서비스의 혁신을 위해 마련된 법안인 만큼, 혁신 사업자들의 목소리도 반영된 법안이 탄생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충분한 소통을 통해 발전적인 법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2. Blockchain News

‘생각하는’ AI 곧 출시... “오픈AI·메타 새 모델 출시 예정”



“GPT-5·라마 3, 추론하고 계획 가능할 듯”

오픈AI와 메타가 ‘추론’과 ‘계획’이 가능한 진화된 인공지능(AI) 언어모델을 조만간 출시한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픈AI와 메타의 경영진은 챗GPT와 같은 거대언어모델(LLM)의 차기 버전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이번 주에 전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지원을 받는 오픈AI는 GPT-5라고 불리는 차기 모델이 ‘곧’ 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픈AI 최고운영책임자(COO)인 브래드 라이트캡은 FT와 인터뷰에서 차세대 GPT는 추론과 같이 ‘어려운 문제들’을 푸는데 진전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더 정교한 방식으로 더 복잡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AI를 보게 될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501326>

2. Blockchain News

‘생각하는’ AI 곧 출시... “오픈AI·메타 새 모델 출시 예정”

것”이라며 “내 생각에 우리는 모델들이 추론하는 능력과 관련해 이제 표면을 긁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날의 AI 시스템은 일회성 소규모 작업에는 매우 뛰어나지만, 여전히 매우 제한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타도 앞으로 몇주 안에 새 AI 모델인 ‘라마 3’(Llama 3) 출시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타의 AI 연구 부사장인 조엘 피노는 “우리는 이러한 모델이 단지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추론하고 계획하고 기억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론과 계획은 AI 연구자들이 ‘범용인공지능’(AGI)이라고 부르는 인간 사고 수준의 AI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단계다.

추론과 계획을 할 수 있어야 챗봇과 가상 비서가 일련의 관련 작업을 완료하고 행동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메타의 수석 AI 과학자인 안 레쿤은 9일 런던에서 열린 행사에서 “현재 AI 시스템은 실제로 생각이나 계획 없이 한 단어 뒤에 다른 단어를 생성한다”면서 시스템은 복잡한 질문을 다루거나 정보를 장기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여전히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른다”고 말했다.

그는 추론을 추가하는 것은 AI 모델이 “가능한 답을 검색하고 행동의 순서를 계획하며 그 행동의 효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정신적 모델을 구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501326>

2. Blockchain News

‘생각하는’ AI 곧 출시... “오픈AI·메타 새 모델 출시 예정”



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메타 AI 데이’ 행사에서 닉 클레그 메타 글로벌 담당 사장(왼쪽)과 안 레쿰이 청중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2024.4.9 photo@yna.co.kr

그는 예를 들어 공항 도착을 포함해 파리 사무실에서 뉴욕 사무실까지 이르는 여정의 각 단계를 계획하고 예약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를 개발 중이라고 말했다. 메타는 런던 행사에서 자사의 메신저 서비스인 왓츠앱이 안경 제조사 레이벤과 협업해 만든 스마트 안경에 새로운 AI 모델을 결합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 몇 달에 걸쳐 다양한 응용프로그램과 장치에 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용량의 라마 3을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크리스 콕스 메타 최고 제품책임자는 레이벤 안경 활용과 관련, 안경에 내장된 카메라로 고장 난 커피 기계를 보게 되면 라마 3의 지원을 받는 AI 비서가 기계 고치는 방법을 설명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501326>

2. Blockchain News

‘생각하는’ AI 곧 출시... “오픈AI·메타 새 모델 출시 예정”

그는 “우리는 항상 AI 비서들과 대화할 것”이라며 “우리의 전체 디지털 식단은 AI 시스템에 의해 조정될 것”이라고 했다.

AI 시스템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앞서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는 이달 8일 인간을 능가하는 AI가 “내년 안에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그는 노르웨이 국부펀드 CEO와의 인터뷰에서 “AGI를 가장 똑똑한 인간보다 더 똑똑한 AI로 정의한다면 아마도 내년에, 예를 들어 2년 이내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공지능(AI)

2. Blockchain News

“VC도 가상자산 투자” 일본 웹3로 기술·인재·자본 몰린다

연내 LP의 가상자산 직접 투자 허용 방안 추진

쟁글, 해시드 등 웹3 업체들 일본으로 총출동

<표> 일본 암호자산(가상자산) 규제 현황

규제 항목	규제 도입 이전	규제 도입 이후	개정 / 시행
법인의 암호자산 보유	-발행 또는 투자로 암호자산을 보유한 경우, 처분하지 않더라도 기말평가이익 (미실현이익) 과세	-자사 발행 토크에 대해 기말 평가이익을 과세하지 않기로 결정	-2023년 6월 시행
		-타사 발행 토크에 대해 기술적 처분 제한이 존재하는 경우 (락업 등), 평가이익을 과세하지 않기로 결정	-2024년 4월 시행
법인의 암호자산 투자 및 투자 유지	- 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 (VC펀드), 투자신탁은 암호자산에 직접 투자 불가	- 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 투자신탁이 암호자산에 직접 투자 가능. 법인이 주식이 아닌 토크를 대가로 VC 펀드로부터 자금조달 가능	-2024년 개정 예정

(해시드오픈리서치(HOR) 제공.)

일본정부가 웹3(Web 3.0)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면서 한국과 일본 간의 웹3 사업 교류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특히 벤처캐피탈(VC) 등 투자사들이 가상자산에 직접투자하는 길이 열리면서 기술·인재·자본이 일본 웹3 생태계로 유입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한책임회사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신(新)자본주의’ 일환으로 웹3

2. Blockchain News

“VC도 가상자산 투자” 일본 웹3로 기술·인재·자본 몰린다

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에 웹3 정책추진실을 설립하는 한편 매년 웹3 백서 등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MUFG), SBI, 노무라 등 전통 금융권도 가상자산 등 웹3 시장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유한책임회사(LP)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의결, 오는 6월 국회 제출을 추진하면서 웹3 투자 활성화 길을 열었다는 평가다.

가상자산사업자인 하이퍼리즘 측은 “벤처펀드가 토큰에 직접 투자할 수 있고, 기업이 주식 대신에 토큰으로 벤처펀드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며 “일본시장에 새로운 길이 열리면서 웹3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이 일본으로 모이고 있다”고 전했다.

■쟁글과 해시드 일본 웹3 생태계 선점

일본의 웹3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웹3 대표주자 쟁글과 해시드도 일본 생태계 선점에 나섰다. 온체인 데이터 기반 웹3 솔루션 업체 쟁글은 오는 7월 도쿄와 서울에서 웹3 관련 B2B 컨퍼런스 ‘어둡션(Adoption)’을 개최한다.

한국과 일본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통신, 제조, 유통, 엔터테인먼트 등 여러 산업 내 웹3 비즈니스 담당자들이 한 자리에 모일 예정이다. 쟁글 측은 “‘어둡션 2024’를 한일 양국 웹3 비즈니스 협력의 교두보로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어둡션 서울’은 베인앤컴퍼니 및 삼정KPMG, ‘어둡션 도쿄’는 일본의 웹엑스(WebX)와 공동 주관해 비즈니스 전문성을 한층 높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 해시드도 일본 벤처투자사 비대쉬 벤처스와 함께 오는 7월 도쿄에서 프라이빗 크립토 행사 ‘블록체인 리더스 서밋 도쿄(BLS Tokyo 2024)’를

2. Blockchain News

“VC도 가상자산 투자” 일본 웹3로 기술·인재·자본 몰린다

개최한다. 블록체인 기반의 비즈니스 트렌드를 전달하고, 일본 및 글로벌 현직자들의 네트워크를 지원한다는 목표다.

팩트블록과 함께 매년 '코리아블록체인위크(KBW)'를 공동주최하고 있는 해시드는 서울은 물론 싱가포르, 샌프란시스코, 뱅갈루루 등에 거점을 두고 있는 글로벌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다. 비대쉬 벤처스도 일본 최대 스타트업 행사인 '비대쉬 캠프(B Dash Camp)'를 개최하고 있다.

해시드 김서준 대표는 “일본 주요 기업의 리더들과 함께 블록체인 산업의 현황과 성공 사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장이 될 것”이라며 “이번 서밋을 통해 일본 블록체인 시장의 기회를 글로벌 커뮤니티와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2. Blockchain News

역대급 코인 불장에도 은행권은 '거리두기'

비트코인 1억 원 돌파 '활황'
실명계좌 제휴 은행 단 5곳
최대 한도도 500만 원 그쳐
자금 이탈 가속화 우려 반영
자금세탁 등 악용 가능성도



서울 강남구 업비트라운지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가상자산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돌파하는 등 가상자산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은행권은 가상자산 시장과 거리 두기를 계속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규제, 자금 이탈 우려 속에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세를 경계하는 움직임마저 포착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기준 가상자산거래소와 실명계좌 제휴를 맺은 은행은 신한은행, NH농협은행, 전북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5곳이다. 지난해부터 2년간 가상자산거래소 5곳과 추가 제휴를 한 은행은 없다. 개인 투자자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거래소로 이체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소와 제휴 은행 계좌 개설이 가상자산 거래의 첫 관문이다.

<https://mobile.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4040818072857665>

2. Blockchain News

역대급 코인 불장에도 은행권은 '거리두기'

은행권이 가상자산거래소 등과 연계를 주저하는 데는 금융당국의 규제가 존재한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르면 은행이 실명계좌 발급을 위해선 자금세탁 방지 조직·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자금세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실명계좌 제휴를 맺은 은행에게도 책임을 묻는다.



은행	거래소
케이뱅크	업비트
농협은행	빗썸
신한은행	코빗
카카오뱅크	코인원
전북은행	고팩스

자료:각사 공시

업비트와 제휴한 케이뱅크는 5억 원이었던 최대 한도를 2022년 8월 1일 1000만 원으로 줄였고, 올해 1월에는 한도가 절반인 500만 원까지 줄였다. 2021년 가상자산 시장 성장성을 점치고 제휴를 시도했던 부산은행은 최종적으로 실명계좌를 발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은행권이 가상자산과 거리를 두는 데는 '머니무브'에 대한 우려 속에 경계감이 반영됐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가상자산으로 자금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 입장에서는 고객 확보 차원의 제휴보다는 시장의 성장을 돕는 '득보다 실'이 많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은행 정기 예·적금은 15조 원 가까이 감소했는데, 이 유동자금은 대부분

2. Blockchain News

역대급 코인 불장에도 은행권은 '거리두기'

가상자산 시장과 주식 시장에 유입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달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정기예금 잔액은 873조 3761억 원, 정기적금 잔액은 31조 3727억 원이다. 전월 대비로는 각각 12조 8740억 원, 1조 8478억 원 줄었다. 반면 가상자산 거래대금은 국내 5개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고팍스·코인원) 기준 지난달 15일 하루에만 14조 8603억 원이 거래됐다.

가상자산 업계는 은행권과 당국의 부정적인 시각이 시장 확대에 가장 큰 위협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은행과 실명계좌 제공 계약을 1년간 진행하는데, 은행이 재계약에 나서지 않을 경우 거래소 운영 자체가 위협받는 구조일 수밖에 없다.

가상자산 업계 한 관계자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이미 제도권에 들어왔거나 각국에서 진입하려는 시도가 있는데, 여전히 부정적인 당국과 은행의 거리 두기로 '갑을' 관계는 더욱 견고해지고 있다"며 "시장의 성장만큼 규제 완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 Blockchain News

코인베이스,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 '무죄'



미국 항소법원이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코인베이스에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법원은 증권법 12(a)(1)항에 따라 미등록 증권 판매에 대한 코인베이스의 잠재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증권법 제29조에 따라 거래별 계약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코인베이스는 지난 2022년 3월 미등록 증권인 가상자산 79개를 위험성에 대한 고지 없이 판매, 연방법과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제소됐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2019년 10월 8일부터 2022년 3월 11일까지 이뤄진 코인베이스 내 토큰 거래에 영향을 미친다.

폴 그레왈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CLO)는 X(옛 트위터)를 통해 이번 판결에 감사를 표하면서 "코인베이스가 가상자산 2차 거래에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2. Blockchain News

제22대 총선, 175석으로 민주당 압승... 공약으로 내건 코인 정책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마무리 된 가운데, 각 정당이 주요 과제로 앞세웠던 암호화폐 관련 공약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진행된 제22대 총선은 전국 투표율 67.0%를 기록하며 지난 1992년 14대 총선(68.0%) 이후 3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종합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은 지역구 161석, 비례대표 14석으로 총 175석을 획득하며 단독으로 과반 의석(58.33%)을 확보했다. 여당인 국민의힘(국민의미래)은 지역구 90석, 비례대표 18석으로 총 108석(36%)을 확보했다.

이어 조국혁신당 12석(4%), 개혁신당 3석(1%), 새로운미래 1석(0.33%), 진보당 1석(0.33%) 순이었다.

2. Blockchain News

제22대 총선, 175석으로 민주당 압승... 공약으로 내건 코인 정책은?

이번 선거 결과는 암호화폐 산업의 규제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22년 12월 진행된 대통령 선거 당시에도 암호화폐는 대선 후보들에게 주요 의제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정당은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암호화폐의 채택, 과세, 합법성에 영향을 미친다.

온체인 데이터 분석 플랫폼 크립토크uant(CryptoQuant)가 발표한 두 정당의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입장 요약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디지털 자산 과세와 관련한 부분에, 민주당은 최근 미국에서 승인되어 암호화폐 시장 상승 랠리를 이끈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부분을 강조하여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디지털 자산 과세의 시행을 연기하는 데 개방적이며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과세 시기와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리 체계를 만들고, 모든 중앙화된 거래소에 대한 상장 기준을 표준화하여 투자자를 보호할 계획이다. 투자자 보호 메커니즘을 가진 토큰 출시 허용을 추진한다.

비교적 암호화폐에 개방적인 공약을 내세웠던 더불어민주당은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투자 제한을 해제하고, 과세 혜택을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디지털 자산 ETF를 추가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또한 암호화폐 매매 수익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고 디지털 자산 비과세 범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한도를 높이겠다고도 공약했다.

2. Blockchain News

“업비트, 3월 현물 거래 ‘297조’ 전세계 2위”



두나무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출처=박범수/ 디지털애셋

한국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3월 현물 거래량이 약 297조원으로 전세계 2위를 차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 블록체인 매체 우블록체인은 4월 10일(현지시각) “3월 업비트 현물 거래량은 2179억2409만달러(약 297조원)로 전세계 거래소 중 2위를 차지했다”고 가상자산 정보제공 플랫폼 코인게코 자료를 인용해 전했다.

WU
BLOCKCHAIN

Wu Blockchain

@WuBlockchain · 팔로우하기

X

CEX Data Report for March: Spot trading volume on major exchanges increased by a huge 134% month-on-month in March. Derivatives trading volume on major exchanges increased by 47% MOM in March. Read more wublock.substack.com/p/cex-data-rep... 더 보기

Spot trading volume of major CEXs				
Spot	Feb.	Mar.	Change	
Binance	479,959,671,373	1,149,992,388,732	139.6%	
Upbit	73,143,926,763	217,924,085,656	197.9%	
Bybit	92,185,680,162	190,239,671,722	106.4%	

<https://www.digitalasset.works/news/articleView.html?idxno=6870>

2. Blockchain News

“업비트, 3월 현물 거래 ‘297조’ 전세계 2위”

OKX	71,069,975,551	173,410,595,440	144.0%
Coinbase	68,328,120,539	159,167,150,775	132.9%
KuCoin	32,711,828,571	118,275,881,456	261.6%
Bitget	34,909,496,255	95,665,656,862	174.0%
Gate	40,028,021,656	86,991,783,434	117.3%
HTX	44,530,769,756	82,703,925,894	85.7%
BitMart	39,111,961,802	80,919,369,563	106.9%
Mexc	41,094,594,179	59,960,135,106	45.9%
Crypto.com	35,930,706,705	51,929,685,927	44.5%
Bitfinex	8,240,303,204	17,460,158,795	111.9%
SUM.	1,061,245,056,517	2,484,640,489,361	134.1%

오후 9:47 · 2024년 4월 10일



매체는 “업비트 3월 거래량은 2월 거래량 100조원에서 197.9%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물 거래량) 1위는 바이낸스로 2월 654조원에서 3월 1568조원으로 139.6% 늘었다”고 했다.

또 “업비트 다음으로 바이비트, OKX, 코인베이스 등이 뒤를 이었다”고 덧붙였다.

업비트의 3월 트래픽도 2월보다 늘었다.

매체는 “업비트 트래픽은 2월 850만에서 3월 1520만으로 80% 늘었다”고 트래픽 분석업체 시밀러웹 자료를 인용해 설명했다.

이어 “접속 국가 비율은 한국 96%, 인도네시아 1%, 미국 1% 등”이라고 덧붙였다.

<https://www.digitalasset.works/news/articleView.html?idxno=6870>

2. Blockchain News

유망 RWA 코인, 프리세일 1,300만 달러 모금 - 도대체 RWA가 뭐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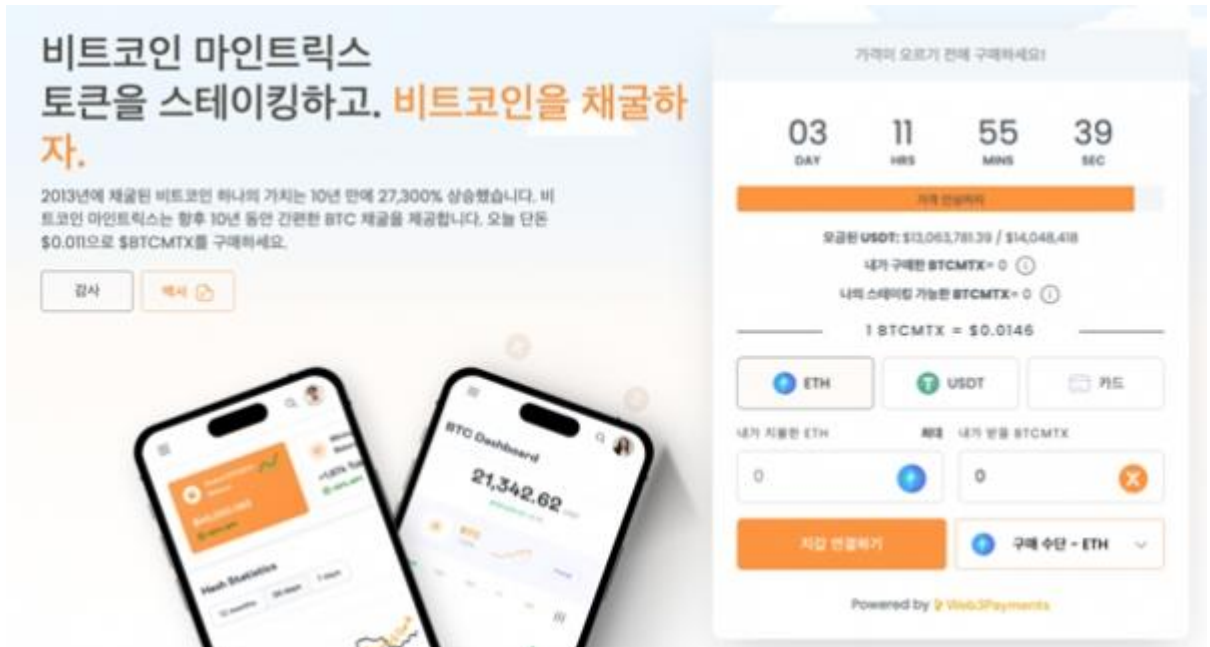
RWA는 부동산, 저작권, 채권 등 현실 세계의 자산을 블록체인 기술로 토큰화하는 개념으로 최근 주요 알트코인 테마로 각광받고 있다. 블록체인과 실물자산을 연결한다는 측면에서 토큰 증권(STO)과 비슷하지만, STO가 증권으로 분류되어 규제를 받는다면 RWA는 탈중앙화 금융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에서 RWA 펀드를 출시하면서 관련 코인이 몇 배 뛰는 등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블록체인과 실물자산을 연결하는 암호화폐로 신규 프리세일 코인 비트코인 마인트릭스가 떠오르고 있다. 비트코인 마인트릭스는 ICO를 진행한 지 몇 달만에 1,300만 달러 이상 모금해 거래소 상장이 기대되는 주요 사전 판매 프로젝트 중 하나이다.

◆비트코인 마인트릭스란?

2. Blockchain News

유망 RWA 코인, 프리세일 1,300만 달러 모금 - 도대체 RWA가 뭐길래?



비트코인 마인트릭스(Bitcoin Minetrix, BTCMTX)는 비트코인 채굴 과정을 토큰화한 스테이크-투-마인 암호화폐이다. 전통적으로 비트코인 채굴에 고가의 장비와 높은 전기료가 필요했다면, 비트코인 마인트릭스는 사용자가 \$BTCMTX 토큰을 스테이킹해 비트코인을 간접적으로 채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즉, 수십개의 ASIC (주문형 반도체)가 있는 작업장이나 전기료 필요 없이 개인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준다.

투자자가 네이티브 토큰 BTCMTX를 스테이킹 풀에 예치하면 보상으로 거래 불가능 ERC-20 채굴 크레딧을 받게 된다. 이 크레딧을 소각하면 비트코인 채굴 파워를 임대하거나 비트코인 채굴 수익의 일부를 나눠 받을 수 있다. 사용자는 언제든지 스테이킹을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에 대한 온전한 소유권을 가진다는 이점이 있다. 장기 채굴 계약을 할 필요 없이 원하는대로 이용할 수 있다.

2. Blockchain News

코인시장 새 키워드 'RWA' 급부상...美 블랙록이 찍은 이유는



/ 사진=픽사베이 제공

RWA(Real World Asset, 블록체인 기반 실물자산)가 코인시장의 새로운 키워드로 급부상 중이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RWA 시장 진출을 공식화한데 이어 국내외 RWA 코인들도 저마다 덩치를 불리는 모습이다.

11일 코인 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외 주요 RWA 코인들의 시세가 급등하고 있다. 업비트 RWA 코인 중 하나인 폴리매쉬의 경우, 한달전만해도 개당 300원대에 거래됐지만 이달 들어선 700원대를 훌쩍 뛰어넘었다.

주목할만 지점은 거래대금이다. 지난달 27일 폴리매쉬의 업비트 내 일 거래대금은 약 7900억원을 기록했다. '대장 코인' 비트코인에게 밀리지 않을 만큼, 거래량을 끌어모은 것. 이는 타 거래소에서도 마찬가지다. 빗썸에서는 엘리시아(EL), 코인원에서는 온도파이낸스(ONDO) 등이 대표적 RWA 코인으로 분류된다.

사실 RWA는 부동산, 채권 등 현실 세계의 자산을 블록체인상에 토큰화하는 것을

<https://www.techm.kr/news/articleView.html?idxno=122964>

2. Blockchain News

코인시장 새 키워드 'RWA' 급부상...美 블랙록이 찍은 이유는

뜻한다. 현실 세계의 자산을 토큰화할 경우, 일반 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웠던 자산을 분할해 '조각투자'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들 중 RWA 담보대출 프로토콜은 기존 디파이 대출과 다르게 실물 자산을 담보로 대출이 이뤄진다. 현재 미국 국채, 금, 귀금속, 회사채, 부동산 등에서 관련 테스트가 한창이다.

2. Blockchain News

"홍콩 비트코인 ETF, 중국 본토 투자자 구매 불가"- 우 블록체인



홍콩에 상장될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국 본토의 투자자들이 구매할 수 없다고 중국계 언론인 우 블록체인이 13일 엑스에 공유했다.

그는 다수의 ETF 발행사들로부터 규제상의 제약 때문에 본토 투자자의 구매가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매트릭스포트(Matrixport)는 중국 본토 투자자들로부터 큰 자본 유입으로 홍콩 비트코인 ETF에 250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2. Blockchain News

“홍콩 비트코인 ETF, 중국 본토 투자자 구매 불가”- 우 블록체인



ETF 발행사들은 최근 중국 본토와 홍콩을 잇는 선강통(Southbound Stock Connect)을 통해 중국 본토 투자자들이 홍콩 비트코인 ETF에 투자가 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려져 왔으나, 실제로는 중국의 규제로 인해 암호화폐 관련 ETF 투자가 금지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규제 환경은 암호화폐와 관련된 자산에 대해 매우 엄격하다. 선강통 프로그램도 디지털 자산 제품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국의 보수적인 암호화폐 위험 관리 방침이 드러난다.

코인게이프는 이러한 중국 본토 자본의 암호화폐 ETF 투자 장애에도 불구하고 홍콩은 ETF 시장을 계속 확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3. Blockchain Financial

업비트 독주 제동 나선 크립토닷컴...관건은 탈 김치 프리미엄 가격 제공 여부

국내 거래소 시장 점유율 업비트가 대부분 차지...락인 효과 돌파 주목
글로벌 기준 적용해 김치 프리미엄 없는 가격 제공 여부가 성공적 정착 결정 변수
기존 플랫폼 익숙해진 이용자들 끌어들이기 위해 유의미하고 차별화된 정책 필요
금융당국 심사 통과 난항 예상...자금세탁 등 관련 리스크에 대해 신중한 검토 불가피



글로벌 가상화폐거래소 크립토닷컴이 국내 코인마켓시장 진출을 선언하면서 업계가 예의주시 하고 있다. 한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국내 5대 가상화폐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박스)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던 시장 판도에 대변혁이 예상된다. / 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글로벌 가상화폐거래소 크립토닷컴이 국내 시장 진출을 선언하면서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두나무가 운영하는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가 국내 시장 점유율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크립토닷컴이 락인 효과(Lock-in, 기존 소비자를 묶어두는 효과)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업계 안팎에서는 김치 프리미엄이 없는 가격 제공 여부가 성공적인 정착을 가능할 관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크립토닷컴은 한국인 투자자를 위한 가상화폐 거래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해 국내 가상화폐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우선 가상화폐를 사고파는 코인마켓을 시작하고 원화로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원화마켓까지 서비스를 확장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3. Blockchain Financial

업비트 독주 제동 나선 크립토닷컴...관건은 탈 김치 프리미엄 가격 제공 여부

현재 금융당국 인가를 받은 원화마켓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곳이다. 이 중에서 업비트는 약 80%대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빗썸까지 포함하면 거래 점유율은 90% 이상에 육박한다"고 설명했다. 크립토닷컴이 계획대로 한국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다면 한국에 진출하는 첫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가 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업비트 독주 시장에 제동이 걸릴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크립토닷컴은 110개 이상 국가에서 8000만 사용자를 보유한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다. 앞서 크립토닷컴의 한국 진출은 지난 2022년 국내 가상화폐 간 거래소(C2C 거래소) '오케이비트'를 인수하면서 시작됐다. 'C2C'는 비트코인으로 이더리움을 사는 것처럼 가상화폐로 다른 가상화폐를 사는 형태다. 현금으로 가상화폐를 사는 것과는 다르다. 한국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가상자산 사업자(VASP) 자격 등을 얻은 크립토닷컴은 C2C 거래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크립토닷컴만의 글로벌 기준을 적용해 김치 프리미엄이 없는 가격을 제공하는 여부가 한국 시장에서 성공적인 정착을 결정하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치 프리미엄은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가격이 해외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한다. 같은 시간에 가상화폐를 거래해도 해외보다 국내 거래소에서 가격이 비싸게 형성된다. 이는 공급보다 수요가 높아 발생한다. 매수세가 몰릴수록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는 구조다.

그 동안 투자자들은 김치 프리미엄으로 해외보다 가상화폐를 비싸게 구매했다가 가격이 폭락해 프리미엄이 사라지면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김치 프리미엄이 없는 가격으로 국내 거래가 가능해질 경우 한국 투자자들은 해외 거래소보다 더 비싼 가격에 가상자산을 매수할 필요가 없어진다. 결국 기존 국내

3. Blockchain Financial

업비트 독주 제동 나선 크립토닷컴...관건은 탈 김치 프리미엄 가격 제공 여부

거래소 투자자들이 크립토닷컴으로 몰릴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기존 플랫폼에 익숙해져 고착화돼 있는 이용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유의미하고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글로벌 거래소의 원화마켓 진입 장벽은 높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심사 통과에 적지 않는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관측도 나온다.

사실 해외 거래소의 국내 시장 진출 선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세계 1위 가상화폐거래소 바이낸스도 국내 진출을 위해 2022년 말 국내 원화거래소인 고팍스를 인수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 금융당국에서 2년 가까이 가상화폐사업자 변경신고를 수리하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 크립토닷컴이 가진 가상자산사업자 국내 라이선스 갱신은 연말로 예정돼 있다. 까다롭기로 정평이 난 우리 금융당국의 심사 기준을 통과해야 한국 시장 진출이 비로소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자금세탁 등 관련 리스크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볼 수 밖에 없다"며 "코인마켓까지는 가능성이 있으나 원화마켓 거래소까지 터줄 지는 반신반의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크립토닷컴 관계자는 "원화마켓은 지난 2년간 준비해 왔다"며 "진입 시기는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3. Blockchain Financial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된다 vs 안된다...엇갈린 전망 [암호화폐 A to Z]

내달 23일 승인 여부 나와
"승인 안될 것" 전망 우세
긍정적 전망도 적지 않아
'증권성' 여부 변곡점 될 것



사진=EPA

다음달 23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자산운용사 반에크가 신청한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캐시 우드 아크인베스트 최고경영자(CEO)는 "SEC가 비트코인 때와 달리 이더리움 현물 ETF는 천천히 살펴보는 것 같다"며 "적극적으로 소통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에릭 발추나스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는 "SEC는 의도적으로 대화를 지연하고 있는 것 같다"며 "어디를 봐도 긍정적인 신호나 정보가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발추나스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확률을 50%에서 30%로 낮춘 바 있으나 이번에는 25%로 한번 더 낮췄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69630>

3. Blockchain Financial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된다 vs 안된다...엇갈린 전망 [암호화폐 A to Z]

시장조사업체 GSR은 "이더리움 현물 ETF가 다음달 승인될 가능성은 20%"라며 "SEC가 최근 이더리움의 증권성을 조사하며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승인 확률을 75%에서 20%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낙관론도 적지 않다. 오피리아 스나이더 21세어즈 CEO는 "이더리움 현물 ETF 서류와 비트코인 현물 ETF 서류 간에 큰 차이가 없고, 상당히 일관성 있는 내용이어서 SEC가 살펴볼 내용이 적을 것"이라며 "다음달 승인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했다.

이더리움의 증권성 여부가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의 관건이 될 것이란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당시 "비트코인은 금, 은과 같은 비증권이기 때문에 ETF 출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2018년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 시절 강의를 통해 "이더리움이 충분히 분산됐기 때문에 증권이 아니다"고 했지만 현재 겐슬러를 필두로 한 SEC는 이더리움의 증권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하기 전까지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3. Blockchain Financial

리플 CEO "올해 가상화폐 시장 배로 성장" ...규모 7천조원 전망



갈링하우스 CEO, 현물 ETF·반감기 꼽으며 시장 확대 전망

블록체인 스타트업인 리플(Ripple)의 최고경영자(CEO)가 올해 말까지 가상화폐 시장이 배로 확대되면서 시장 규모가 약 7천조원을 넘어서리라는 낙관적인 주장을 폈다.

가상화폐 시가총액 7위인 리플(XRP)의 발행사이기도 한 리플의 브랜드 갈링하우스 CEO는 7일(현지시간) 미국 CNBC 방송에 올해 초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및 이달 말 비트코인 반감기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업계에 오랫동안 종사하면서 이러한 추세가 왔다가 가는 것을 보고 있다"며 "거시적 추세, ETF와 같은 요인들이 처음으로 실제로 기관 자금을 끌어내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수요를 촉진하면서 동시에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는 것을 보고 있다"며 꼭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더라도 공급과 수요가 확대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500025>

3. Blockchain Financial

리플 CEO "올해 가상화폐 시장 배로 성장" ...규모 7천조원 전망

가상화폐 전체 시장 규모는 지난 4일 현재 약 2조6천억 달러(3천500조원)로, 시장이 두 배로 커진다면 5조2천억 달러(7천조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CNBC는 전했다.

비트코인은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약 49%를 차지하며, 지난 1일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1조3천억 달러(1천750조원)에 달한다.

비트코인은 지난 12개월 동안 140% 이상 급등했다. 가상화폐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한국시간으로 8일 오후 3시 현재 6만9천700달러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밖에 갈링하우스 CEO는 미국 내에서 규제와 관련해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올해는 선거가 있는 해로 차기 미국 행정부가 가상화폐 산업에 좀 더 수용적인 쪽으로 정책 초점을 둘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 경제국이지만, 불행하게도 가장 적대적인 가상화폐 시장 중 하나"라며 "미국은 변화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제미니(Gemini)의 최고운영책임자(COO)인 마셜 비어드도 최근 CNBC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큰 폭의 등락을 거듭하다 올해 후반에 15만 달러(약 2억원)까지 오를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반감기라는 호재가 이미 반영됐고 변동성이 클 것이라며 4만달러대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3. Blockchain Financial

[블록체인핫이슈] '실적 부진' 가상자산 거래소...토큰증권법 개정 언제쯤?

토큰증권 플랫폼 잇따라 나오는데...법 개정은 하세월

미국 법원 배심원단 "테라폼랩스·권도형 전 대표, 테라 사기 책임 있다"

이더리움 발행량 더 줄여야 한다? 커뮤니티 시끌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지난해 부진한 성적표를 받은 가운데 올해는 비트코인 ETF 승인 등 각종 호재를 바탕으로 반등에 힘을 쏟고 있다.[사진: 각 거래소]

국내 주요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지난해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다. 올해는 비트코인 등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반등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 가상자산 거래소 작년 실적 부진...올해 분위기 반전 총력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지난해 매출은 연결기준으로 1조154억원으로 전년 비 19% 감소했다. 영업이익도 6409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비 21% 줄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8050억원으로 전년비 6배 증가했다.

이번 실적 감소는 경기침체, 투자심리 위축, 금리인상 장기화 등에 따른 가상자산 시장 침체가 원인으로 풀이된다.

<https://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2906>

3. Blockchain Financial

[블록체인핫이슈] '실적 부진' 가상자산 거래소...토큰증권법 개정 언제쯤?

두나무는 서비스 다양화로 올해 반등 모멘텀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업비트는 비트코인 가격 상승 시기에 맞춰 자사 가상자산지수 서비스인 UBCI에 'BTC-ETH 듀오 전략 지수'를 추가했다.

• 빗썸, 지난해 매출 1358억원...순이익 243억원

빗썸의 작년 매출은 1358억원으로 전년비 58% 줄었다. 영업손실은 149억원을 기록하며 적자로 전환됐다. 당기순이익은 243억원으로 전년비 75% 감소했지만 4년 연속 흑자를 유지했다.

빗썸은 매출 감소 원인을 거래대금 감소를 꼽았다. 지난해 4분기 거래 수수료 무료 정책을 진행하면서 주 수입원인 수수료 수익이 감소한 여파로 분석된다.

컴투스홀딩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코인원 지난해 매출은 전년비 36% 감소한 224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손실은 45억원으로 전년에 이어 적자가 계속됐다.

토큰증권 발행(STO) 시장 개화 기대감에 관련 플랫폼 개설이 잇따르고 있지만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실제 상품 청약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토큰증권 플랫폼 잇따라 나오는데...법 개정은 하세월

최근 조각투자사, 증권사들이 STO 플랫폼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유진투자증권은 자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스마트챔피언을 통해 토큰증권 상품 청약, 배당, 청산이 가능한 STO 플랫폼을 구축했다.

그러나 투자계약증권은 현재 유통 시장도 개설되지 않은 상태다. 관련 법안이

3. Blockchain Financial

[블록체인 핫이슈] '실적 부진' 가상자산 거래소...토큰증권법 개정 언제쯤?

지난해 7월 발의돼 12월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3. Blockchain Financial

‘비트코인으로 여행 떠나볼까’ 브라질 관광 도시 ‘비트코인 결제’ 채택



셔터스톡 / Jericoacoara(제리코아코아라)

비트코인을 일상적인 화폐로 사용하는 세 관광 도시인 브라질의 제리코아쿠아라, 롤렌테, 그리고 상투메 다스 레트라스는 비트코인 사용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한 비트코인 결제를 지원한다.

가치 저장 수단인가, 교환 수단인가?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역할과 거래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함께 수행한다. 시장을 선도하는 비트코인은 안정성과 유동성이 뛰어나며, 국제적으로 가치 있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는 비트코인이 다른 여러 통화들보다 큰 규모의 시장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트코인은 신뢰할 수 있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정받아 왔으며, 동시에 거래나 송금 등 교환 수단으로도 널리 사용된다.

비트코인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관광 도시

제리코아쿠아라: 브라질 북동부에 위치한 제리코아쿠아라는 비트코인을 일상적인 화폐로 사용하는 선구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지역 학생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https://www.tokenpost.kr/article-172688>

3. Blockchain Financial

'비트코인으로 여행 떠나볼까' 브라질 관공 도시 '비트코인 결제' 채택

활동을 통해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비트코인을 통한 기부 활동을 진행하며 화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롤란테: 브라질 남부에 위치한 롤란테는 인구가 21,000명 정도인 작은 도시이다. 이 도시에서는 비트코인 에아키 프로젝트를 통해 상거래에서 비트코인 사용을 촉진하고 있다. 또한 비트코인 스프링 페스티벌과 같은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의 비트코인 사용자들을 모으고 있다.

상투메 다스 레트라스: 이 도시는 미나스 제라이스 주의 주요 관광 도시 중 하나로, 비트코인을 일상적인 결제 수단으로 채택하고 있다. 마운틴 비트코인 프로젝트를 통해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역 상점들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가능케 하였다.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역할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비트코인을 일상적인 결제에 적합하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네트워크는 비트코인의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고, 소액 결제나 빠른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 특히, 제리코아쿠아라, 롤란테, 그리고 상투메 다스 레트라스와 같은 도시에서는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 비트코인 결제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액 결제나 빠른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비트코인이 일상적인 화폐로서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기술적 발전은 비트코인의 가치 저장 및 교환 수단으로의 역할을 강화시키고 있다.

3. Blockchain Financial

1INCH, 암호화폐 직불카드 출시... 마스터카드와 협업



(출처=1인치)

탈중앙화 금융(DeFi) 기업 1인치 네트워크(1inch Network)가 암호화폐와 명목화폐의 브리지 기능을 가진 새로운 직불카드를 출시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8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새로운 암호화폐 직불카드는 1인치가 마스터카드 그리고 뱅스(Baanx)와 협력해 개발했다.

1인치 블로그에 따르면 직불카드는 계좌번호, 만료일 및 일부 거래에 사용되는 CVC 보안 코드 등이 포함된 일반적인 직불카드와 같이 모든 기능을 갖추고 있다. 여기엔 사용자가 디지털 결제도 가능하도록 가상 카드 기능도 포함된다.

마스터카드의 암호화폐 및 핀테크 부서 부사장인 크리스티안 라우(Christian Rau)는 새 카드가 웹3와 웹2 세계 사이에 필요한 혁신적인 다리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435>

3. Blockchain Financial

1INCH, 암호화폐 직불카드 출시... 마스터카드와 협업

일반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나 웹3 거래소도 법정화폐를 암호화폐로 변환하는 기능이 있지만, 이러한 방식이 결제 프로세스에 새로운 단계를 추가하기 때문에 거래 속도가 느려지고 보안 위험이 높아질 뿐 아니라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새로 출시된 카드를 사용하면 구매 시점에 고려할 단일 전환률로 암호화폐 및 웹3 자금에 대한 관리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카드는 영국과 유럽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1인치는 카드 사용 지역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1인치 관계자는 매체 인터뷰에서 "서비스 영역 확장은 파트너에 달려 있다"라며 "우리는 1인치 카드의 지리적 확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3. Blockchain Financial

"해킹 코인, 거래소에 내다팔면 부정 거래"...당국 수사 대상 된다

코인원 이용자, 해커와 장외거래한 뒤 해당 물량 거래소에 투하
당국, 시세 조종 외 부정 취득 물량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금융감독원 전경

최근 국내 투자자가 해킹으로 탈취된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장외거래로 획득한 뒤 국내 거래소에 대거 투하한 사건이 벌어져 논란이 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불법으로 획득한 가상자산의 매도 행위도 '부정거래'로 간주하고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

오는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불공정거래 관련 제도 정비에 한창인 당국은 거래소에 이 같은 부정거래를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상 거래 시스템'의 완비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최근 코인원 거래소에서 발생한 '엔에프피(nfp) 코인 사태'와 관련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물량으로 가지고 잘못된 거래 행위를 했다면 (당국의) 수사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468213?sid=101>

3. Blockchain Financial

"해킹 코인, 거래소에 내다팔면 부정 거래"...당국 수사 대상 된다

관계자는 "이용자보호법 시행 전에도 사기나 절도 행위에 대한 법의 접촉이 가능한지의 여부도 살펴볼 수 있다"며 "대상이 코인일 뿐이지 이미 부정한 자산을 내다 판 행위는 그 자체로도 범죄가 되기 때문에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명 엔에프피(nfp) 코인 사태는 지난달 28일, 한 국내 투자자가 탈취된 자산을 해커로부터 장외 거래로 구매한 뒤 입출금을 막지 않은 코인원에 해당 물량을 대거 투하하면서 코인 가격이 입출금을 막은 글로벌 거래소 대비 70%가량 급락한 사태를 가리킨다.

당시 해당 물량을 투하한 투자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 '해커의 물량을 코인원의 유동성이 소화하지 못할 것 같아서 일괄 구매를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듯한 내용'과 '차명훈 코인원 대표를 조롱하는 듯한 내용'을 작성하며 논란을 빚기도 했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OTC 구매한 알봉인데

| 2024.03.28 18:58:43

물량 700만개쯤 남았고 코인원 290~300원할때

나한테 0.15\$에 일괄구매하라고 될 하던데 샀으면 미래에 어떻게 됐을까

물량 다 사서 전부 코인원 쏘셔놓았는데 계정 동결 시키면 어쩌지하는 걱정이었

코인원 오더북 유동성 개뿔망이라(210원까지 매수대기물량 50만개정도 밖에 없었음) 물량 다 못팔거 같아서 분할 구매하고 물량 정리하면

계속 구매하겠다고 제안했는데 일부만 팔아주고 잠수함

근데 나랑 될 빠개지고 몇시간후에 0.2\$에 물량 무한공급하던데

코인원에서 290~300원대에 누가 무한 매수벽쳐서 물량 다 받아주더라

명론이가 받았냐?

근데 내가 물량 다 받고 쏘셔 놓았어도 지금까지 존버못했을거고

안팔고 코인원에서 들고있었으면 마이그레이션 지원해줬을까 싶기도하네

트르토 글 쓰려다가 VPN 막혀있고 어차피 변창호 인가 뭐시기에서 거래소 지갑 다 따고 특정해놔길래

강 받고닉으로 글썽

news1

엔에프피(nfp) 코인을 해커로부터 장외 거래로 구매한 뒤 코인원 거래소에 해당 물량을 대량 투하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 국내 투자자의 글. (디시인사이드 갤러리 캡처)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468213?sid=101>

3. Blockchain Financial

"해킹 코인, 거래소에 내다팔면 부정 거래"...당국 수사 대상 된다

오는 7월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거래를 직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데, 당국은 법 시행에 앞서 관련 제도 정비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거래소들에 이 같은 부정거래뿐만 아니라 시세 조종 등의 행위까지 적발할 수 있는 이상 거래 시스템의 완비를 주문했다. 이에 따라 국내 거래소들은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은 향후 거래소들의 가상자산에 대한 입출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입출금 금지 예외 조항을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만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코인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초기부터 입출금을 막을만한 명확한 근거를 프로젝트로부터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입출금을 막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가격 덤핑 사태'로 인해 논란이 커지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단 다른 글로벌 거래소와 같이 입출금을 막아놓은 상태다.

코인원은 "내부 검토 결과, 여전히 재단의 자산 유출이 해킹으로 인한 사고인지는 불분명하다"며 "진위여부 파악을 위해 지속적으로 재단 측과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3. Blockchain Financial

FIU, 가상자산 인력 증원 요청...기대 품는 업계

올해 가상자산 업무 산적...인력 부족 지적
업계 "충분한 소통으로 제도 연착륙 해야"



출처=게티이미지뱅크

국내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담당 인력 증원을 요청했다. 올해 대거 시행될 가상자산 관련 규제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가상자산을 본격적으로 제도권에 들이기 위해서다. 그동안 정부 부처에 가상자산 전담 인력이 적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이번 증원에 대해 업계에선 긍정적인 기대도 엿보인다. 다만 인력 증원은 행정안전부의 결정 권한이라 증원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행안부에 가상자산 담당 인력 증원을 요청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가상자산검사과의 인력 증원 내용을 담은 수시직제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검사과는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수리,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3. Blockchain Financial

FIU, 가상자산 인력 증원 요청...기대 품는 업계

수시직제는 이미 확정된 예산을 추가로 늘릴 수 있는 '추가경정예산'과 비슷하다. 행안부의 2024년도 정부조직 관리지침에 따르면 정부 부처는 신규 인력이 필요하면 행안부에 다음 연도 인력을 늘리는 '정기직제'를 요청한다. 당해 정원 조정이 시급하고 인력 재배치가 힘들면 수시직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수시직제 요청은 핵심 국정 과제, 업무에 큰 변화를 주는 법률 제·개정 등 시급한 현안이 있어야 한다. 유상엽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전년도에 계획을 세워 정기직제로 정원을 확정했으나 시급한 이유로 인력이 필요하면 수시직제로 보강할 수 있다"며 "공무원은 한 번 늘리면 줄이기 어려워 정기직제를 바꾸기 쉽지 않기 때문에 수시직제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기직제 및 수시직제 운영

- (1) 각 부처는 신규 인력 수요가 발생한 경우 기존 인력을 전환·재배치 하는 등 자체 인력 효율화 방안을 우선 강구한다.
- (2) 각 부처는 기존 인력 전환·재배치로 신규 인력 수요를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행정안전부에 2025년도 정기직제를 요구할 수 있다.
 - 각 부처는 법령 제·개정 사항, 시설·장비 도입 등 예측이 가능한 경우 정기직제로 요구하고, 행정안전부는 필요한 인력을 엄밀히 심사한다.
 - 각 부처는 2025년도 정기직제 요구 시 사전에 자체 조직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한다.
- (3) 각 부처는 사전예측이 어렵고 급년 중 기구·정원 조정이 시급히 필요하나 인력 재배치로도 대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수시직제를 요청할 수 있다.
 - 수시직제는 핵심 국정과제다, 국민안전 직결 사항 등 시급한 현안이 있는 경우에 요청할 수 있다.
 - 정부조직법 제정에 따른 조직개편 수반사항, 업무 수행체계의 광범위한 변화를 수반하는 법률 제·개정사항 등

- 각 부처는 수시직제 요구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요구서 제출 시 업무 효율화에 따른 인력 재배치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감축한 기구는 회계연도 범위 내에서 다른 기구로 상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는 수시직제를 요청받은 경우 제출서류 미비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5일 이내에 검토한다.
 - 기획재정부는 행정안전부의 예산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5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 (4) 행정안전부와 각 부처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등에 중원이 필요한 경우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전단을 실시할 수 있다.
 - (5) 행정안전부는 긴급한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가급적 다수의 직제 제·개정을 취합하여 일시에 국무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 (6) 각 부처는 직제시행규칙 제·개정 시 다른 부처와 기능중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처와 사전에 협의·조정한다.
 -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연관기능분석' 기능을 활용하여 기능중첩사항을 확인

2024년도 정부조직 관리지침./출처=행정안전부

3. Blockchain Financial

FIU, 가상자산 인력 증원 요청...기대 품는 업계

FIU가 가상자산 인력 증원에 나선 이유는 올해 가상자산 관련 규제들이 대거 시행되기 때문이다. VASP 신고 요건을 추가하고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 요건을 강화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시행령 개정안 시행이 대표적이다. 수시직제 요청 요건인 '업무에 큰 변화를 주는 법률 제·개정사항 등'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그 외에도 미영업·신고 사업자 감시, VASP 갱신 신고 심사 등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지만 가상자산검사와 정원은 지난 1월 기준 7명에 불과했다.

FIU는 지난해 가상자산 의심거래보고(STR) 건수가 1년 사이 49% 급증하자 지난 2월 가상자산 분석 전담 인력을 보강하고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감독원도 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대비해 지난 1월 가상자산 전담 부서인 가상자산 감독·조사국을 출범했다.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인력을 늘려 가상자산을 본격 제도권에 들이겠다는 의도다.

정부의 가상자산 인력 증원 요청에 대해 업계에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담당 인력이 적다는 지적은 이전부터 있었다"며 "업계 관련 인력이 늘어난다면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커진다는 의미인 만큼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업계에 새로운 법령이 적용되는 경우 연착륙이 잘 돼야 한다. 인력이 늘어난다면 업계와 충분한 소통을 거쳐 기민한 대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FIU의 계획대로 증원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수시직제 신청·승인 요건이 제한적이고 행안부가 수시직제 요구를 최소화 하도록 지침을 내렸기 때문이다. 유 교수는 "기본적으로 모든 정부 조직은 인력을 늘리고 싶어 한다. (인력 증원 여부는) 행안부의 결정에 달렸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직제 변경에 대해 논의 중인 경우 진행 상황에 대해 밝히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덧붙였다.

3. Blockchain Financial

스테이블코인 FDUSD, 이더리움·BNB 체인 이어 '수이 블록체인' 통합



3억 달러 이상의 시가총액을 가진 퍼스트 디지털(First Digital)의 네이티브 스테이블코인 FDUSD가 이더리움과 BNB 체인을 통합한 후 세 번째 블록체인인 수이(Sui)에서도 이용 가능해졌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FDUSD의 CEO인 빈센트 초크(Vincent Chok)는 "이번 통합으로 탈중앙화금융(DeFi) 사용자들 사이에서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늘어날 것"이라며 "수이는 떠오르는 네트워크이며 디파이(DeFi) 공간을 지원한다. 1년 내 성장도 놀라우므로 새로운 스테이블코인으로서는 함께 성장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수이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레이어 1 블록체인 중 하나로, 지난 2월에는 총예치금액(TVL)이 5억 달러를 넘어서며 인상적인 DeFi 성장을 이어갔다. 수이는 당시 아포스(Aptos)와 카르다노(Cardano)를 추월한 것으로 알려졌다.

FDUSD를 수이로 확장하면 수이 네트워크에서 기본적으로 발행되는 최초의 상위 스테이블코인이 된다. 디파이라마 데이터에 따르면, 이 블록체인은 테더(USDT)와 USD 코인(USDC)을 포함하여 3억 4000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475>

3. Blockchain Financial

'가상자산 회계지침' 첫 적용되는 1분기 보고서...핵심이 빠졌다

ERP 서비스 이용 업체 25%는 전통 기업
거래소 위탁자산 주식공시는 3분기 의무화
임의 공개 가능해 이용자 보호 효과 의문



출처=게티이미지뱅크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회계처리 지침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1분기 보고서 제출기한이 다가오면서 가상자산 업계가 분주하다. 복잡한 가상자산 회계처리를 위해 블록체인 맞춤형 전사자원관리(ERP) 시스템을 찾는 업체도 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투자자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거래소 위탁 가상자산에 대한 주식공시 의무화는 이번 보고서에 적용되지 않는 데다가 의무화 이후에도 부분 공시에 그칠 전망이다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발행·보유한 상장사와 외부감사 대상에 오른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이번 1분기 보고서부터 보유 가상자산을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가 제정한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통해 가상자산

<https://decenter.kr/NewsView/2D7VDOYZU3>

3. Blockchain Financial

'가상자산 회계지침' 첫 적용되는 1분기 보고서...핵심이 빠졌다

회계처리와 주석공시가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1분기 보고서는 늦어도 5월 중으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업계는 관련 작업에 분주하다. 복잡한 절차 탓에 외부 ERP 시스템에 대한 수요도 높다. 블록체인 위에서 움직이는 가상자산 온체인 데이터의 경우 블록체인 바깥에서 회계처리를 하기 위해선 데이터를 일일이 수기로 받아 적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온체인 ERP 솔루션 '쟁글 ERP' 베타 버전을 이용하는 업체는 이 달 기준으로 60곳을 넘었다. 대부분 가상자산을 발행한 재단들이지만 전통 기업도 15곳(25%)에 달한다. 자체 가상자산을 통해 블록체인 게임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게임사들도 20여곳이다. 쟁글 관계자는 "지갑 주소와 거래(트랜잭션)에 라벨링을 해 이후 유사 내역을 반자동 라벨링 처리하는 등의 회계처리 자동화·간소화 기능에 대한 수요가 높다"며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이용자보호법에 따라 발행량·유통량 컴플라이언스 관련한 토크노믹스 기능에 대한 문의도 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공시 미비로 원성이 높았던 거래소의 이용자 예치 가상자산 수량 등 고객위탁 가상자산에 대한 주석공시는 이번 보고서에선 의무 사항이 아니다. 그간 거래소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은 임의로 공시해왔다. 수백개에 달하는 가상자산 가운데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등 10종 미만의 가상자산만 분기보고서에 표기하고 나머지 수백개의 가상자산은 '기타'로 뭉뚱그려 보유량 총합과 총액을 한번에 표기하는 식이다. 준비금 증명 차원에서 분기별로 발표하는 실사보고서도 가상자산별 예치수량·거래소 보유량 등 세부 내역은 모두 가린 채 공개해 '깜깜이 공시'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투자자들이 자신의 자산을 맡긴 거래소의 건전성을 판단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당국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일인 7월 19일 이후부터 위탁 가상자산에 대한 주석공시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외감법 대상인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대형

3. Blockchain Financial

'가상자산 회계지침' 첫 적용되는 1분기 보고서...핵심이 빠졌다

거래소들은 오는 3분기부터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 공정가치뿐 아니라 위탁 자산의 보관 방법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빗썸은 지난 4일 감사보고서에서 "(가상자산 회계지침에 따라)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보유 가상자산 및 고객위탁 가상자산 등에 대해 보다 충분하게 공시할 예정이며 가상자산 관련 주석 내용이 상세하게 보완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나 위탁 가상자산 주석공시가 의무화되더라도 여전히 투자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회계지침에서도 위탁 가상자산의 전수 표기를 요구하진 않기 때문이다. 이전처럼 거래소 자체 판단에 따라 선별한 가상자산만 공시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주성호 한국회계기준원 수석연구원은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고객위탁 가상자산의 경우 주석에 전수 표기할 필요가 없이 중요한 가상자산만 표기하면 된다"며 "보유량 규모 등 표기에 대한 기준도 따로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거래소의 자체 판단에 맡긴다"고 설명했다.

주요 거래소 거래량 가운데 알트코인 거래 비중이 최고 95%에 달할 정도로 알트코인 투자가 특히 각광받는 국내 시장 특성상 투자자 보호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주석에 공시되는 주요 가상자산 이외의 가상자산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불안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한편으론 위험성이 높은 가상자산 투자를 지양하라는 시그널처럼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3. Blockchain Financial

클레이튼, 핀시아와 통합한다... 신규 브랜드 이달 말 공식 발표



레이어 1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Klaytn)의 국내외 사업 확장을 위해 설립된 클레이튼 재단은 라인테크플러스(LINE Tech Plus)가 개발한 개방형 블록체인 및 웹 3.0 사업의 운영사 '핀시아 재단(Finschia Foundation)'과 오는 4월 30일(화), 통합 재단의 새 브랜딩을 공개한다.

두 재단은 새 브랜딩 발표를 통해 지난 1월 발의되고 2월에 각 재단 거버넌스 참여자들에게 승인받은 '프로젝트 드래곤'의 과도기적 운영 체제 마감하고, 통일된 정체성 하에서 본격적인 메인넷 통합 과정을 이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통합 재단 신규 브랜드는 30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오프라인 미디어 행사와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소통 채널을 통해 대중에 공개된다. 이번 행사는 신규 브랜드 스토리 및 BI 소개 뿐 아니라, 메인넷 통합 절차 진행 현황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또한, 같은 날 오전 10시를 기해, 두 재단이 각각 운영해 왔던 다양한 소셜 미디어 및 온라인 커뮤니티를 신규 브랜드를 적용한 단일 통합 커뮤니티로 운영 개시한다. 앞으로 통합 재단 인력 구성과 재단 설립 등 주요 업무들도 지속적으로 착실히 밟아 나갈 예정이다.

<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476>

3. Blockchain Financial

클레이튼, 핀시아와 통합한다... 신규 브랜드 이달 말 공식 발표

클레이튼, 핀시아는 이제 서로의 장점 극대화와 상호보완을 통한 더 높은 경쟁력을 갖춘 통합 메인넷 체계로 진화하고 있다. 두 재단은 향후 발표될 신규 통합 브랜드 하에서 각자 차별적으로 발전시켜 온 기술, 서비스,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전면 통합해 아시아 대표 메인넷으로서 자리매김해 나갈 것이다. 통합 재단은 아시아 최대 수준의 디지털 지갑 잠재 사용자 접점 활용, 카카오와 라인(LINE) 서비스 기반 웹 3.0 자산 승계 및 연동 등을 통해 블록체인의 대중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핀시아와 클레이튼 재단은 "두 재단은 지난 2월 통합안이 가결된 이후 최대한 신속히 메인넷 통합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번 신규 브랜드 발표는 통합 체인 론칭을 위한 중요한 마일스톤을 달성한 것으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며 "앞으로 업계 및 커뮤니티에 약속했던 프로젝트 드래곤 통합 과제를 착실히 수행해 더 큰 경쟁력을 갖춘 메인넷으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합 재단은 글로벌 브랜딩 및 마케팅 전문기업인 '알레프(Aleph)'와 협력해 신규 브랜드 아이덴티티 구축 프로세스를 밟아 왔다. 알레프는 은행 및 금융 서비스 분야의 크리에이티브 전략, 브랜딩, 광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등을 촉진하는 글로벌 크리에이티브 엔지니어링 전문 기업으로, 최근에는 Cake DeFi, Coin Jar, Rush Gold 및 기타 금융 회사들과 협력해 웹 3.0 및 디지털 자산 산업계에서 견고한 기반을 구축해 왔다.

3. Blockchain Financi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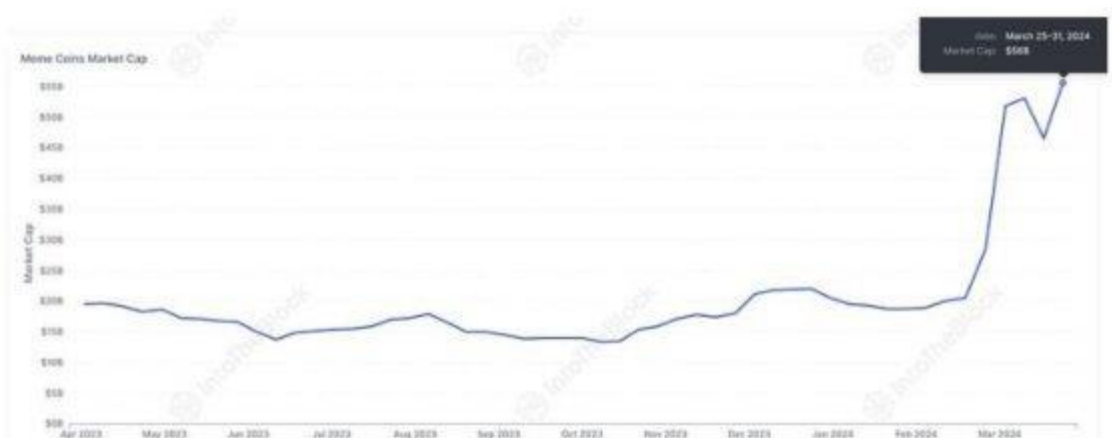
밈코인 시가총액 급증, 2021년 이후 최대치



비트코인(BTC) 등 암호화폐 시장이 강하게 상승하는 가운데 밈코인들의 시가총액이 202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8일(현지시간) 데일리호들이 보도했다.

암호화폐 분석업체 인투더블록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밈코인의 총 가치가 560억 달러로 거의 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인투더블록의 연구 책임자 루카스 아우투무로는 "이번 분기 밈코인에 대한 수요는 202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이것이 경제 과열 탓인지 아니면 금융 허무주의가 커진 탓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지난 몇 달 동안 밈코인은 암호화폐의 주요 주제가 됐다"고 밝혔다.



자료: 인투더블록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500161>

3. Blockchain Financial

میمکوین 시가총액 급증, 2021년 이후 최대치

인투더블록 자료에서는 도지코인(DOGE), 페페(PEPE), 시바이누(SHIB) 등이 밈코인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1분기 동안 시가총액이 도지코인 100%, 시바이누 2.5배, 페페는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밈코인 시장에서 가장 큰 성장을 기록한 종목은 솔라나(SOL) 기반 밈코인 도그워펫(WIF)이었다.

솔라나의 대표적인 밈 코인인 WIF는 활발한 커뮤니티 활동을 바탕으로 연간 20배의 수익률을 올렸으며, 1분기 동안 이더리움보다 많은 거래량을 기록한 날도 여러 번 있었다.

인투더블록은 최근 밈코인 열풍에 대해 이더리움의 덴쿤 업그레이드 이후 수수료가 급락한 것을 주 요인 중 하나로 꼽았다.

4. DaWinKS Overview

Blockchain Financial Technique



Digital ATM/DTM & Crypto ATM/CTM

- 블록체인 핀테크 플랫폼(DPEC)과 연동한 DTM, CTM & QR Pay POS 운영
- 전세계 여권 및 신분증 위변조 판별, 판독과 안면인식 -> 본인확인 고도화
- KYC, AML 체크 후 QR(Wallet) 발급
- QR(Wallet) Pay 연동 실물화폐 및 암호자산 결제 POS(App) 시스템
- Metaverse/가상세계 & IRL(In Real Life) /현실세계 연동 NFT, Defi 금융서비스 실현

특허 기반의 차별화된 DIGITAL ATM 기술



- 특허 기반의 독자적 신분증 위변조 판독기술로 KYC 완벽 구현 - 1차 본인인증
- 신분증(여권) 사진과 AI 얼굴영상(Liveness/2D,3D) 매칭 - 2차 본인인증
- 고도화된 본인인증(KYC) 기술로 불특정다수인(외국인포함) 대상 외환 혁신금융 서비스 제공
- 입출금·결제·환전·송금·충전·예금·대출 등 기존 금융 핀테크 + Crypto Defi 융합 플랫폼
- 전세계 유일의 가상자산과 명목화폐 동시 운영 ATM 플랫폼

2024-16호

Thank you

DIGITAL(CRYPTO) ATM · PAYMENT

DPEC PLATFORM



DAWIN
Blockchain Total Solution